

## 時間副詞와 動詞의 ‘~겠다’ 活用形이 나타내는 動作<sup>(1)</sup>의 時間的 樣相

李 庸 周  
(國語教育科)

### 1.

필자(1983.12)는 한국어 동사의 時制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瞬時完結動作, 持續未完結動作 過程 狀態 關係 心理現象 缺如 등 7개 분야 동사의 ‘~는다’ 형이 특정 時間副詞와 함께 쓰여서 나타내는 동작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떠한 時點에서 행해지는 것인가를 추적해 본 일이 있다.

본고는 그 후속 작업으로 동사의 ‘~겠다’ 형이 특정 時間副詞와 함께 쓰여서 나타내는 동작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떠한 時點에서 행해지는 것인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각 문장에서 ‘~겠다’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일체 다루지 않겠다.<sup>(2)</sup>

### 2.

瞬時完結動作을 나타내는 동사 ‘출발하다’의 ‘~겠다’ 형은 ‘오늘’이라는 시간부사와 함께 쓰여서 ‘오늘’이라는 24시간 단위의 時間帶에서의 出發을 나타낸다.

(1) 철수는 오늘 출발하겠지.

(1) 편의상 ‘動作’이라 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動作, 過程, 狀態, 關係, 心理現象 缺如 등을 대표하는 술어로 사용한다. 또 이 글에서는 ‘겠’의 의미에 대한 추구는 보류하고 몇 가지 이른바 시간부사라고 하는 語詞와 동사의 ‘~겠다’ 형이 함께 適格文을 만드는 경우 그 문장(sentence)의 의미 내용인 動作 過程 등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時間帶에 행해지는 것인가를 보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겠’의 의미 기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나 본고에서는 거기까지 다루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專門用語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술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용어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을 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 많다.

(2) 본고에서 주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라는 시간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10년 전의 사건을 얘기하거나 假定된 특정 狀況에 있어서의 發話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에서 화자가 말하고 있는 동작 ‘出發’은 發話時 이전의 ‘오늘’일 수도 있고 발화시 이후의 오늘일 수도 있다.

話者が (1)을 말한 것이 오전 10시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철수는 이미 오전 7시에 출발했다. 그렇지만 화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철수가 오늘 떠난다는 것만을 알고 있었으며 정확히 몇시에 떠난다는 것은 애당초 알고 있지도 않았다. 이런 경우라면 철수는 이미 발화시 이전인 7시에 출발한 것과 관계 없이 화자는 (1)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만일에 철수가 아침 7시에 떠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 그가 이미 7시에 떠났는지의 여부를 모르는 형편에서라면 (2)나 (3)과 같이 말했을 것이며, 애초부터 철수가 아침 7시에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실지로 7시에 철수가 떠난 것을 아는 경우라면 화자는 (4)나 (5)와 같이 말했을 것이다.

- (2) 철수는 오늘 떠났겠다.
- (3) 철수는 오늘 7시에 떠났겠다.
- (4) 철수는 오늘 떠났다.
- (5) 철수는 오늘 7시에 떠났다.

(1)은 발화시 이후의 ‘오늘’ 있을 出發을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발화시 이후의 動作인 경우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이 더 일반적인 용법이 아닌가 한다. 물론 발화시 이후 어떤 시간에 出發할 것이라는 情報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런 시간 관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저 오늘이라고만 하여 (1)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1)은 ‘오늘’ 철수가 출발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철수가 출발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1)과 같이 말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앞에서 예로 든 발화 (1)은 그 주어가 3인칭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들은 3인칭 주어의 경우를 가지고 한 것이다. 주어가 1인칭이 되면 형편은 달라지는 것이다.

- (5) 나는 오늘 출발하겠다.

(5)와 같이 주어가 1인칭인 경우, 즉 동작의 주체와 발화자가 동일인의 경우는 이 말이 나타내고자 하는 동작은 발화시 이후의 오늘 있을 것이다. 발화시 이전에 있는 出發이라 하면 동작의 주체인 발화자는 이미 出發地點을 떠난 뒤이기 때문에 (5)와 같이 말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필연적으로 (6)이나 (7)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 (6) 나는 오늘 출발했다.
- (7) 나는 오늘 7시에 출발했다.

(6)은 정확한 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며 (7)은 정확한 出發時間을 明示한 것이다. 발화자나 청취자의 필요나 사정에 따라 (6)이나 (7)이 형편에 맞도록 선택될 수 있는 것

이다.

주체가 2인칭인 경우에는 1인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 출발하겠지’가 발화시 이전의 오늘의 出發일 수는 없다. 2인칭은 발화의 상대자다, 청취자다. 출발지에서 두 사람이 말을 한다면 주체인 동시에 발화의 청취자인 그 사람은 아직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8)의 발화는 발화시 이전의 이미 행해진 出發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은 반드시 발화시 이후의 오늘에 있을 出發을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8) 너는 오늘 떠나겠지.

시간부사 ‘지금’과 함께 쓰이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9) 철수는 집에서 지금 떠나겠지.

(9)는 그 出發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리에서 ‘지금’이라는 현재에 일어나는 出發을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 (9)가 현재 이후 짧은 시간내의 출발을 나타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시각에 이미 끝난 출발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지는 않는다. 그때는 ‘지금 출발했겠다’가 될 것이다.

시간부사 ‘지금’의 경우에도, ‘오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체가 1인칭의 되면 (10)의 ‘나의 출발’은 발화시 이후, 정확하게 말하면 ‘발화시 직후의 출발’이 될 것이다. 발화하는 순간 ‘나’는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이다.

(10) 나는 지금 떠나겠다.

이와 같이 人稱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는 ‘겠’의 의미·용법을 기술하는 경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안다.

‘출발하다’의 ‘~었겠다’ 형이 시간부사 ‘오늘’과 함께 쓰인 (11)이 나타내는 동작 ‘출발’은 발화시 이전의 오늘의 것이다. 그것은 이미 행해진 동작이다.

(11) 철수는 오늘 떠났겠다.

(12) 철수는 지금 떠났겠다.

시간부사 ‘지금’과 함께 쓰인, ‘~었겠다’ 형은 (12)에서와 같이 지금 끝난 출발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지금’이라는 時間帶는 극히 짧은 것이며 ‘출발하다’라는 동작이 瞬間적으로 完結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동작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12)에서 발화자는 이미 행해진 出發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발하다’나 ‘도착하다’와 같은 순시완결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겠다’ 형이 ‘내일’ ‘모레’와 같은 시간부사와 함께 쓰여서 나타내는 동작은 발화시 이후의 것이다.

(13) 나는 내일(모레) 출발하겠다.

(14) 철수는 곧 출발하겠지.

(13)에서 발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出發은 ‘내일’이나 ‘모레’라는 未來의 것이다. ‘곧’은 ‘지체 없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어쨌든 (14)의 출발도 발화 순간에는 없는 것이다.

‘~있겠다’ 형은 未來의 시간을 지시하는 시간부사와 함께는 쓰이지 않는다. (15)는 부적격이다.

(15) \*너는 내일 출발하였겠다.

그러나 ‘곧 바로, 5분 뒤에’ 등등의 語詞들은 ‘~있겠다’ 형과 어울린다. 이들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시간을 지시하는 말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들이 반드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즉 미래를 가리키는 말들은 아니다. (16)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過去에 있어서의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

(16) 어제 우리가 헤어진 뒤 너는 곧(바로, 5분 뒤에) 서울을 출발했겠지.

이런 점에서 ‘곧, 바로, 5분 뒤’ 등은 ‘내일, 모레’ 등과 그 의미 기능이 같지 않다.

‘~졌다’ 형은 過去 시간을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17)·(18)이 모두 부적격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9)·(20)과 같이 ‘~있겠다’ 형은 과거의 시간을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인다.

(17) \*나는 어제 출발하겠다.

(18) \*철수는 그저께 출발하겠다.

(19) 너는 어제 출발했겠구나.

(20) 철수는 지난 주에 도착했겠다.

(19)·(20)의 경우 그 ‘출발’과 ‘도착’은 ‘어제’와 ‘지난 주에’ 행해진 것이다.

### 3.

持續未完結動作을 나타내는 ‘가다’ ‘오다’ 등의 ‘~겠다’ 형의 용법을 보기로 한다.

(21) 나는 오늘 가겠다.

(22) 철수는 오늘 오겠지.

(21)은 주어가 1인칭이고 (22)는 3인칭이다. 다 같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였다. 그러나 그들이 지시하는 동작의 時間的 樣相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21)에서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동작은 예외 없이 ‘발화시 이후의 오늘’의 것이다. 그러나 (22)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철수는 발화시 이전에 왔을 수도 있고 발화시 이후에 올 수도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철수가 발화시 이전의 오늘에 온 것(또는 오게 되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발화시가 차지하는 오늘 중의 時點에 따라서 發話形式이 달라지기도 한다. 아침 일찍이거나 이른 오전중이라면 (22)와 같이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루 해가 거의 저물었거나 밤이라면 (23)과 같이 말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23) 철수가 오늘 왔겠구나.

시간부사 ‘지금’이 쓰여도 주어가 1.2인칭인 (24)·(25)의 동작은 항상 발화시 이후의 것이다. 그러나 (26)과 같이 주어가 3인칭의 경우는 그 동작은 발화시일 수도 있고 발화시 이후의 것일 수도 있다.

(24) 나는 지금 가겠다.

(25) 너도 지금 가겠니?

(26) 철수는 지금 오겠지?

결국 (26)은 (27)과 같은 의미로도 쓰이고 (28)과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고 하겠다. (28)의 경우 ‘오다’는 ‘도착’을 말한다.

(27) 철수는 지금 오고 있겠지?

(28) 철수는 (지금) 곧 오겠지?

‘가다’ ‘오다’는 持續未完結動作이기 때문에 (27)이나 그와 같은 의미·용법의 (26)과 같은 발화가 가능한 것이다.

持續未完結動作을 나타내는 동사 ‘가다’ ‘오다’ 등의 ‘~았겠다’ 형을 시간의 현재를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사용해서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동작은 發話時 이전 또는 발화시에 끝난 것이다.

(29) 그는 오늘 미국에 갔겠다.

(30) 철수는 지금 집에 왔겠다.

사실상 (29)는 (31)·(32)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31) 그는 오늘 미국을 향해서 출발했겠다.

(32) 그는 오늘 미국에 도착했겠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 습관상 ‘가다’를 출발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가는 도중의 동작뿐 아니라 출발과 도착의 경우에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33)·(34)는 각각 출발과 도착을 ‘가다’로 표현한 것이다.

(33) 그래, 영희는 갔다. 10분 후면 너의 집에 도착할 것이다.

(34) 애 영희야, 철수 너의 집에 갔니?

출발이든 도착이든 (29)는 話者가 그 동작이 오늘 행해진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사용된다.

(30)은 현실적으로 ‘철수는 지금 집에 왔.’에 의해서 철수가 집에 도착한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행해진 것이다. 거기에 ‘졌’의 의미를 첨가하면 (30) 자체의 의미가 된다.

‘지금’이라는 시간보다 훨씬 앞선 시간에 철수가 집에 도착했음을 화자가 생각하고 있을 때는 (35)와 같이 말하면 그 의미가 분명히 들어난다.

(35) 철수는 지금 집에 와 있겠다.

持續未完結動作의 경우도 동사의 ‘~겠다’ 형만이 미래의 시간을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이며 그 ‘~았겠다’ 형은 이들과 함께 쓰이지 않는다.

(36) 나는 내일 가겠다.

(37) 철수는 이따가 오겠지.

(38) \*철수는 내일 갔겠구나.

(36)·(37)은 적격문이지만 (38)은 부적격이다. ‘내일’과 ‘았’의 충돌이 부적격으로 만들고 있다.

未來의 시간을 지시하는 語詞의 경우와는 달리 過去를 지시하는 語詞는 동사의 ‘~겠다’ 형과 함께 쓰이지 않고 ‘~었겠다’와는 함께 쓰인다.

(39) \*나는 어제 가겠다.

(40) \*너는 어제 가겠구나.

(41) \*철수는 어제 오겠다.

(39)~(41)은 각각 1~3인칭 주어의 경우지만 어떤 인칭의 경우도 ‘어제’와 ‘~겠다’ 형이 함께 쓰여서 적격문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았겠다’ 형은 ‘어제’와 함께 적격문을 만든다.

(42) 철수는 어제 왔겠구나.

#### 4.

過程<sup>(3)</sup>동사의 ‘~겠다’ 형은 현재의 시간을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여서 발화시 또는 발

(3) 過程을 나타내는 동사는 語彙的相으로 보면 持續相이다.

화시 이후의 과정을 나타낸다.

- (43) 釣況은 오늘 더 좋아지겠지.
- (44) 경기 行편은 오늘 좀 달라지겠지.

(43)·(44)는 원칙적으로 발화시 이후의 狀況의 變化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맥락에서 이미 발화시 이전의 오늘에 있어서의 變化를 가리킬 수도 있다. 이미 아침부터 경기가 시작되어 몇 시간이 지난 뒤, 그 경기에서의 狀況을 모르는 화자가 (44)와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시간부사 ‘지금’과 함께 쓰이는 ‘~겠다’형은 현재 變化가 進行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sup>(4)</sup>

- (45) 어서 그 속에 리트마스지를 넣어 보아라. 리트마스지의 색이 지금 변하겠지?

(45)의 ‘리트마스지의 색이 변하겠지’의 부분은 ‘리트마스지의 색이 변하고 있겠지’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는 현재 進行중인 ‘과정’이다.

‘過程’을 한 상태에서 다른 한 상태로의 變化나 추이라고 규정한다면 그 變化나 추이가 行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46)과 같은 발화에서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도) 進行중인 과정일 것이다.

- (46) 작년에 심은 잣나무는 지금도 잘 자라겠지?

(47)과 같이 과정 동사의 ‘~았겠다’형이 현재의 시간을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이면, 그 시간에 특정한 상태에서부터 다른 상태로의 추이나 變化의 과정이 끝나고 그 결과가 나타나 있음을 나타낸다.

- (47) 그곳의 景觀은 지금 많이 달라졌겠다.

이것은 (48)과 같이 하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 (48) 그 곳의 景觀은 ‘지금’ 많이 달라져 있겠다.

시간부사 ‘지금’이 없어도 (49)와 같은 발화는 (47)이나 (48)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 (49) 그 곳의 景觀은 많이 달라졌겠다.

‘~겠다’형이 未來의 시간을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이면 발화시 이후의 過程을 나타

(4) 본문에서는 현재 進行 중인 것만을 예로 들었다. 발화시 이후의 과정을 나타내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좀 기다려라 지금 곧 行편이 달라지겠지.”

낸다.

(50) 오늘의 혼란도 내일(은) 많이 좋아지겠지.

(51) 세상은 곧 살기 좋아지겠지.

(50)이나 (51)은 모두 발화시 이후의 발전 개선 등을 기대하는 화자의 말이다.

過程動詞의 ‘~았겠다’ 형은 미래 시간을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여서 적격문을 만들 수 없다.

(52) \*세상 물정이 내년이면 많이 달라졌겠다.

過程動詞의 ‘~겠다’ 형은 과거를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았겠다’ 형의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다. (53)은 부적격이나 (54)는 적격문이다.

(53) \*철수도 작년에는 많이 자라졌구나.

(54) 철수도 작년에는 많이 자랐겠구나.

(54)의 경우 그것이 발화시 이전의 過程을 나타내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았’의 유무가 (53)과 (54)의 차이, 적격과 부적격의 차이를 낮게 하는 것이다.

## 5.

狀態를 나타내는 동사의 ‘~겠다’ 형은 ‘오늘’ ‘지금’ 등의 현재 시간을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여서 발화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狀態를 나타낸다.

(55) 그는 지금 집에 있겠다.

(56) 그는 오늘 집에 있겠다.

(55)는 화자가 발화시 현재의 ‘그의 在家’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56)은 ‘오늘’이라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그의 在家’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57) 나는 지금 집에 있겠다.

(58) 나는 오늘 집에 있겠다.

(57)은 ‘지금’이라는 시간 현재 자신의 在家를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발화시를 시점으로 길지 않은 시간동안 집에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좀 어색하다.

그리고 (58)은 발화시 이전의 오늘이나 발화시 현재의 오늘보다는 발화시 이후의 오늘 집에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1인칭 주어의 경우 현재의 시간을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인 ‘~겠다’ 형은 발화시 이후



의 동작이나 상태 등을 나타낸다. 현재에 있어서의 동작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지 않는다.

위의 주어가 3인칭인 (55)·(56)에 있어서의 ‘겠’과 1인칭 주어인 (57)·(58)의 ‘겠’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다르면 어떻게 다른 것으로 기술해야 하고 같은 것이라면 이들에게 공통되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있다’의 ‘~있겠다’ 형이 ‘오늘’ ‘지금’과 함께 쓰이는 예를 보자.

(59) 그는 오늘 집에 있었겠다.

(60) 그는 지금 집에 있었겠다.

(59)는 원칙적으로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이후에 쓰이는 말이다. 결국 발화시 이전의 在家이며 사실상 하루를 완전히 또는 대부분을 집에서 보낸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60)은 지금이라는 현재에 在家하였음을 나타낸다. 물론 발화시 이전의 상당한 시간 동안 집에 있었던 것을 의미하며 그 전도 후도 아닌 발화시에만, 在家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발화시 이후의 在家 여부도 관심밖이 아닌가 한다. (61)과 같이 하면 발화시까지 특정한 시간대에 집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까지’의 첨가에 의한 것이다.

(61) 그는 지금까지 집에 있었겠다.

狀態動詞의 ‘~겠다’ 형이 미래의 시간을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여서 (62)·(63)과 같이 미래에 있어서의 狀態를 나타낸다.

(62) 나는 내일 집에 있겠다.

(63) 철수는 한 시간 후에도 학교에 있겠지.

그리고 ‘~있겠다’ 형은 이들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語詞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64) \*너는 내일 학교에 있었겠지.

‘~있겠다’가 미래를 지시하는 語詞들과 함께 쓰이지 못하는 데 반해 ‘~겠다’ 형은 過去의 시간을 지시하는 어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65) \*철수는 어제 집에 있겠지.

그러나 ‘~있겠다’ 형은 ‘어제’와 함께 쓰여서 과거에 있어서의 狀態를 나타낸다.

(65)의 ‘있겠지’에 ‘었’을 하나 첨가하여 (66)과 같이 ‘있었겠지’라고 하면 적격문이 된다.

(66) 철수는 어제 집에 있었겠지.

오늘 철수가 집에 있고 없는 데 따라서 (66)의 의미·용법이 달라지지 않는다.

## 6.

關係를 나타내는 동사 ‘이기다’의 용법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경기를 하든 전쟁을 하든 그것이 끝난 뒤에 勝者와 敗者가 생기는 경우에도 ‘이기다’ ‘지다’는 사용된다. 그래서 흔히 이 동사들을 結果相(語彙的 相)으로 열거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그와 같은 結果를 나타내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다음 (67)·(68)과 같은 용례에서 이들은 경기의 結果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곧 알 수 있다.

(67) 우리팀이 지금 이긴다.

(68) 우리팀이 지금 이기고 있다.

(67)은 (68)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거니와 (67)이나 (68)이나를 막론하고 우리팀이 優勢를 보이거나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眞僞라는 관점에서라면 (67)·(68)은 의미가 동일하다 하겠다.

이러한, 경기 도중의 優劣의 관계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역전되어 우리팀이 지고 경기가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기다’ ‘지다’의 의미는 ‘경기중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경기가 끝난 뒤의 結果로서의 勝利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기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려면 (69)에서처럼 ‘이겼다’가 된다.

(69) 우리팀이 이겼다.

이로 인해서 ‘이기다’의 의미는 ‘경기 도중의 優勢’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은 좀더 확고해진다.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동사 ‘이기다’의 ‘~겠다’형이 현재의 시간을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70) 이번 연맹전에서 오늘 우리팀은 이기겠지.

(71) 우리팀은 지금 이기겠지?

(70)은 오늘의 경기에서 ‘勝者가 되겠지?’와 같이 경기의 結果에 대한 기대이지만 (71)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현재 진행중인 경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현재 이긴다는 것은 경기 도중의 優勢이며 그 우세는 결과에 이어질 수도 있으나 역전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는다.

같은 ‘이기겠지’ 이기는 하나 그것이 쓰이는 맥락에 따라 경기 도중에 있어서의 優勢와

경기 종료후 勝者가 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 동사가 가치는 意味的인 資質이 아닌가 한다.

‘~있겠다’ 형이 ‘오늘’이나 ‘지금’과 같은 語詞와 함께 쓰이면 경기의 結果로서의 得勝을 의미하는 것이다.

(72) 우리 팀이 오늘 이겼겠지.

(73) 우리 팀이 지금 이겼겠지.

특히 (72) 같은 경우, 경기가 끝났거나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각에 있어서의 발화인 것이 보통인데 그런 때 이 발화가 경기 결과로서의 得勝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73)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은가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원칙적으로 지금 막 끝난 경기에서 得勝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해석되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기에서 優勢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73)과 같은 발화가 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여하간 (72)·(73)이 모두 종료된 경기에서의 得勝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未來를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여서 ‘~겠다’ 형은 발화시 이후의 勝負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있겠다’ 형은 未來를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74)는 적격이나 (75)는 부적격이다.

(74) 우리 팀이 내일은 이기겠지.

(75) \*우리 팀이 내일은 이겼겠지.

미래의 경우와는 반대로 ‘~겠다’ 형은 過去를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이지 않으며 ‘~있겠다’ 형만이 이들과 함께 쓰인다. (76)은 부적격이며 (77)은 적격문이다.

(76) \*우리 팀은 어제 이기겠지.

(77) 우리 팀은 어제 이겼겠지.

(77)은 경기 도중의 우세(의 유지)가 아니라 경기 종료 후의 得勝이다.

## 7.

心理現象을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도 그 ‘~겠다’ 형과 ‘~있겠다’ 형의 용법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겠다’ 형이 현재를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이며 발화시 또는 발화시 이후의 특정한 心理作用을 나타낸다.

(78) 철수는 오늘도 어제 일을 생각하겠지.

(79) 저렇게 꾸그리고 앉아서 철수는 지금도 어제 일을 생각하겠지.

(78)이나 (79)나 과거(어제)의 일을 현재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78)의 경우 발화시 이전의 오늘이나, 발화시나 아니면 발화시 이후나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단순히 어제와 오늘의 對比일 뿐이다. (79)는 발화시에 진행되고 있는 ‘생각’이다.

(80)에서는 ‘오늘’과 함께 쓰였지만 원칙적으로 “A팀이 B팀을 이기면”이라는 假定이 있기 때문에 發話時 이후의 心理作用임이 분명하다. 이 가정으로 해서 A팀과 B팀은 아직 경기를 하지 않고 있거나 進行中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철수가 좋아하는 것은 그 後임이 분명하다.

(80) A팀이 B팀을 이기면 철수는 오늘 더욱 기뻐하겠지.

‘~았겠다’ 형은 현재를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이면 그것이 지시하는 時間帶에 있어서 心理作用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81) 철수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생각했겠지.

(82) 너는 지금 틀림없이 그 일을 생각했겠지.

(81)은 오늘 하루 동안에 철수가 어떤 일을 생각했을 것이라는 의미의 발화다. 오늘이기는 하나 철수의 생각은 발화시 이전의 것이 될 것이다. (82)는 ‘지금’이라는 발화시 현재까지의 상대방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이다. 발화시 현재 진행중이라는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未來를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인 ‘~겠다’ 형은 (83)에서의 같이 그 語詞가 지시하는 미래에 있어서의 心理作用을 나타낸다.

(83)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겠다.

‘~었겠다’ 형은 미래를 지시하는 語詞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5분 뒤, 10년 뒤’와 같은 形式 또는 ‘곧, 바로’ 등과 같은 말과 ‘~었겠다’ 형은 함께 쓰일 수가 있다.<sup>(5)</sup>

(84) \*철수는 내년에도 그 일을 기억했겠지.

(85) 철수는 10년 뒤에도 그 일을 기억했겠지.

(84)가 부적절한 것은 ‘내년’과 ‘었’이 충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85)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10년 뒤’이므로 미래라고 생각이 되지만 (85) 전체가 過去에 속할 수 있는 발화이므로 (85)는 부적절이 아니다. ‘10년 뒤’란 말은 過去의 사건일 때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86)과 같은 예를 보면 분명해진다.

(5) 心理現象을 나타내는 동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는 5년 뒤에도 그 곳에 갔겠지”와 같은 것도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86) 철수는 10년 전에 입었던 은혜를 작년에 갚았다. 그는 10년 뒤(후)에도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했겠지.

그러나 (85)가 발화시보다 10년 뒤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그것은 부적격이다. (87)과 같이 ‘지금부터’를 첨가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87) \*철수는 지금부터 10년 뒤에도 그 일을 기억했겠지.

다른 동사와 마찬가지로 心理現象을 나타내는 동사도 그 ‘~겠다’ 형은 過去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지 않으며 ‘~았겠다’ 형만이 쓰일 수 있다.

(88) \*너는 어제 철수의 일을 생각했겠지.

(89) 너는 어제 철수의 일을 생각했겠지.

(88)·(89)의 차이는 ‘었’ 하나의 유무에 의한다.

8.

缺如動詞의 ‘결석하다’는 ‘오늘’이라는 시간부사와 함께 쓰여서 발화시 이후의 ‘오늘’의 缺如를 나타낸다.

(90) 나는 오늘 결석하겠다.

아직 등교 시간이 되지 않은 시각에 학교에 가야 할 학생이 집에 있는 것은 出席의 缺如가 아니다. 즉 缺席이 아니다. 등교 시간 이후에 학교에 있지 않는 것이 缺席 즉 出席의 缺如인 것이다. 아직 결석이 아닌 시간에 (90)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며 이미 등교 시간이 지난 뒤에는 결석한 당사자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91)·(92)와 같이 말한다.

(91) 나는 오늘 결석했다.

(92) 철수는 오늘 결석했다.

이와 같이 ‘결석하다’라는 缺如動詞의 경우, 현재 결석이라는 缺如狀態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었겠다’ 형이 쓰인다는 것은 (필자 1983. 12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93)과 같이 말하는 법은 없지 않은가 한다.

(93) \*나는 지금 결석하겠다.

그러나 缺如가 아닌 參席인 경우는 (94)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발화시 이후의 동작이다.

(94) 나는 지금 참석하겠다.

‘결석하다’의 ‘~겠다’ 형이 未來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내일’과 함께 쓰이면 (95)에서와 같이 ‘내일’에 있을 缺如狀態를 나타낸다.

(95) 나는 내일(은) 결석하겠다.

‘~었겠다’ 형은 미래를 지시하는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96)은 부적격이다.

(96) \*철수는 내일 결석하였겠다.

缺如動詞의 ‘~겠다’ 형은 過去를 지시하는 ‘어제’와 같은 부사와 함께 쓰이지 않으며 ‘~었겠다’ 형만이 과거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인다. (97)은 부적격이고 (98)은 적격이다.

(96) \*철수는 어제 결석하겠다.

(97) 철수는 어제 결석하였겠다.

## 9.

本稿는 동사의 ‘~겠다’形이 時間副詞와 함께 쓰여서 적격문을 만들 때 그것이 나타내는 動作이, 發話時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時間帶에 놓이는가를 추적한 것이다.

‘~겠다’ 형과 ‘~았+겠다’ 형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대강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A. ~겠다.

1. 現在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여서 發話時 현재 또는 발화시 이후, 시간부사가 지시하는 時間帶에 행해지는 동작을 나타낸다.

1) ‘오늘’이라는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면, 主語가 1,2인칭일 때, 반드시 발화시 이후의 동작을 나타내고 3인칭이면 ‘발화시 이후의 오늘’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발화시 이전의 오늘’의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다.

2) 시간부사 ‘지금’과 함께 쓰여서, 주어가 1,2인칭일 때는 발화시 이후의 동작을 나타내고 주어가 3인칭일 경우에는 발화시 현재와 발화시 이후의 동작을 나타낼 수 있다.

발화시 현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瞬時完結動作, 關係, 缺如 등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3) ‘곧’과 함께 쓰이면 인칭에 관계없이 발화시 이후의 동작을 나타낸다.

2. 未來의 時間副詞와 함께 쓰여서 부사가 지시하는 발화시 이후의 시간대에 있어서의 동작을 나타낸다.

3. ‘~겠다’ 형은 過去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 B. ~았+겠다.

4. 現在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여서 발화시 이전에 이미 끝난 또는 발화시에 막 끝난 동작을 나타낸다.

1) ‘오늘’과 함께 쓰여서 ‘발화시 이전의 오늘’에 이미 끝난 동작을 나타낸다.

2) ‘지금’과 함께 쓰여서 ‘지금’ 막 끝난 동작을 나타낸다.

5. 未來의 시간부사와 동사의 ‘~았겠다’ 형은 함께 쓰이지 않는다.

6. 過去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면 부사가 지시하는 발화시 이전의 시간대에 이미 끝난 동작을 나타낸다.

대강 이와 같은 것을 살필 수 있었는데 複文이라던가 기타 過去의 사건을 말하는 脈絡 또는 假定된 사건을 말하는 경우 등 보다 복잡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안다.

보다 상세한 것, 부족하거나 잘못 생각한 점 등은 앞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다.

### 參 考 文 獻

時制 一般이나 ‘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 論著는 많이 있다. 그 주요한 것을 소개한다.

高永根, 1965, 現代國語의 叙法體系에 對한 研究, 國語研究 15.

——, 1966, 現代國語의 直說法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31.

——, 1967, 現代國語의 先語末語尾에 對한 構造的 研究—특히 排列의 차례를 中心으로— 語學研究 3-1.

——, 1974,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對한 構造的 研究, 語學研究 10-1.

金敏洙, 1971, 國語文法論, 一潮閣.

金相大, 1976, 國語時制表示의 特徵, 국어교육 26.

金錫得, 1974, “한국어의 시상” 한불연구 1. 연세대학교 한불연구소.

김차균, 1980, 국어시제 형태소의 의미, 한글 169.

——, 1980, 국어시제의 기본적 의미, 池憲英先生古稀紀念論叢.

——, 1981, ‘을’라 ‘겠’의 의미, 한글 173, 174.

羅鎮錫, 1972,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南基心, 1973, 國語完形補文法研究, 啓明大學 韓國學研究所.

——, 1978, 國語文法の 時制問題에 關한 研究, 塔出版社(1972, 現代國語 時制에 關한 問題; 1975, 이른바 國語時制의 基準時點 問題에 對하여 등 6篇의 論文).

노대규, 1979, 상황소(deixis)와 한국어의 시제, 문법연구 4, 문법연구회.

서정수, 1976, 국어 시상형태의 의미분석연구, 문법연구 3.

——, 1977, ‘겠’에 관하여, 말 2.

- , 1978, 국어구문론연구, 탑출판사.
- 成者徹, 1976, '졌' 과 '을 것이'의 意味比較, 金亨奎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
- 申昌淳, 1972, 現代韓國語의 用言補助語幹 '졌'의 意義と用法, 朝鮮學報 65.
- 이기용, 1975, 時相에 관한 意味公準의 設定, 語學研究 11-2.
- , 1976, 時間論: "지금"의 意味, 語學研究 12-2.
- , 1980, 몬테규 문법에 입각한 한국어 시제의 분석, 언어 5-1.
- 李南淳, 1981, 現代國語의 時制와 相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46.
- , 1981, '졌' 과 '근것', 冠岳語文 6.
- 李承旭, 1958, 國語의 時制研究, 國語研究 6.
- 李庸周, 1983, 韓國語動詞의 意味論的 分類와 '~다/는다'形의 意味에 대한 研究, 師大論叢,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 李翊燮, 1979, 相對時制에 대하여, 白史 全光鏞博士 華甲紀念論叢.
- 李翊燮·任洪彬, 1983, 國語文法論, 學文社.
- 이 경, 1978, 시제와 시상, 허웅박사환갑기념논문집.
- 李鍾徹, 1964, 現代國語의 時制와 相의 研究, 國語研究 12.
- , 1969, 바로매매김(直接時制) 이제이음(現代繼續)에 對한 Aktionsart的 解釋—統辭論的 同心構成에서 deep structure를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42·43 합병호.
- 任洪彬, 1980, '졌' 과 대상성, 한글 170.
- 張奭銀, 時相의 樣相 '계속' '완료'의 生成的考察, 語學研究 9-2.
- 趙恒瑾, 1980, 國語動詞의 時制研究, 忠北大學校 論文集 4.
- 崔鉉培, 1978, 우리말본, 정음사.
- Chung-min Lee 1973, The Korean Modality in the Speech Act, Papers in Linguistics, Univ. of Michigan 1-2.
- Hong Bae Lee, 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범한서적주식회사.

\* 其他 이와 直接 間接으로 관련 있는 것이 있으나 생략함.



Les aspects temporels indiqués par la forme V-겠다(V-kett'a)  
avec l'adverbe temporels en Coréen

Yong-Joo Lee

Résumé

Dans cette étude, nous avons recherché les moments où se situent les actions que la forme verbale ‘~겠다’ indique par rapport au moment de l'énoncé, quand elle constitue une phrase bien-formée avec l'adverbe temporel.

Nous avons distingué les formes ‘~겠다’ et ‘~았+겠다’, de sorte que nous avons gagné le résultat comme ainsi:

A ~겠다.

1. Avec l'adverbe temporel, cette forme présente l'action du moment qu'il indique le moment de l'énoncé ou après le moment de l'énoncé.

1) Quand elle se présente avec l'adverbe temporel 오늘 :

a) elle exprime nécessairement l'action faite après le moment de l'énoncé, en combinant avec 1<sup>ère</sup> ou 2<sup>e</sup> personne.

b) avec 3<sup>e</sup> personne, elle exprime généralement l'action faite après le moment de l'énoncé, mais parfois elle exprime aussi l'action avant le moment de l'énoncé.

2) Quand elle se présente avec l'adverbe temporel 지금 :

a) elle exprime l'action faite après le moment de l'énoncé avec 1<sup>ère</sup> ou 2<sup>e</sup> personne.

b) au cas de 3<sup>e</sup> personne, elle exprime, à la fois, l'action en cours et l'action faite après le moment de l'énoncé.

Il y a une occasion dans laquelle elle ne peut pas exprimer le moment de l'énoncé; ce sont des verbes qui impliquent l'action momentanée, la relation; ou le défaut.

3) Avec “곧”, elle exprime indifféremment l'action qui va se faire, sans rapport avec les relations personnelles.

2. Avec les adverbes temporels marquant le future, elle exprime l'action faite après le moment de l'énoncé que ces adverbes indiquent.

3. Cette forme ne s'emploie pas avec les adverbes temporels marquant le passé.

B. ~았+겠다.

4. Avec les adverbes temporels, cette forme exprime l'action qui est déjà finie ou qui vient de finir avant le moment de l'énoncé.
  - 1) Avec “오늘”, elle exprime l'action qui est déjà finie avant le moment de l'énoncé.
  - 2) Avec “지금”, elle exprime l'action qui vient de finir.
5. Cette forme ne s'emploie pas avec les adverbes temporels marquant le future.
6. Avec les adverbes temporels marquant le passé, elle exprime l'action qui est déjà finie avant le moment de l'énoncé.

En gros, nous avons examiné ces phénomènes. Et encore, il y aurait des cas plus complexes tel que les phrases complexes, les contextes contenant les événements passé, ou les événements supposés.

Ce qui est minutieux ou imparfait seront revu ou complété à d'autres études plus développées.